

양림동 일방통행로 추진 ‘구청-주민’ 갈등

양림동 320m 구간 도로변경안 확정 공사 앞뒤
상인회 “상권활성화, 방향 변경 등 대안 마련”



현장출동 1050

밀어붙이기 일방로 ‘논란’

광주 남구 양림동 일방통행로 설치
를 놓고 남구와 주민들간 갈등이 커
지고 있다.

남구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일방통
행도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의 의견수렴도 안한채 일방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양림동
역사문화길 2단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국비 4억, 시비 4억)을
투입해 사직세탁소-양림 오거리 방
향 320m구간에 일방통행로가 조성
된다.

남구는 이 구간에 인도가 없어 탐
방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도
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자

는 필요성이 제기돼 사업을 추진했
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광주시가
실시한 ‘도심 일방통행로 확대정비
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
립’에 의한 것으로 일방통행로로 적
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2016년엔 주민들의 의견을 묻
는 공청회를 거친 후 찬반투표를 실
시해 지난해 광주경찰청 교통안전 시
설 규제 심의를 통해 일방통행 지정
을 받았다. 지난해 말엔 사업설명회
와 설해도 마쳐 오는 4월께 첫삽을 뜰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림동 상인회 등은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논의, 자체적
인 찬반투표 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양림동에서 28년간 가게를 운영해
온 한귀남씨는“공청회때 인근 주민
상인들을 불러내지 않고 사업설명회
에 가보니 이미 사업승인이 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동네
주민, 상인들의 의견은 외면한채 관
공객이나 기획자 등 일부 의견만 수
렴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전형적인 불
통행정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광주 남구 양림동에 역사문화길 2단계 조성사업 중 하나로 일방통행로 설치가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이곳에서 수십년간 터전을
지켜오며 살아왔던 주민, 상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판이다”고
토로했다.

양림동 일방통행로 추진을 반대하
는 상인들은 지난 2월 상인회를 만들
어 집단 행동에 나섰다. 또 반대서명
운동, 집회,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상인회 등은 일방로 추진대신 자동
차 속도제한(30km), 주말에만 일방
통행 시행, 구간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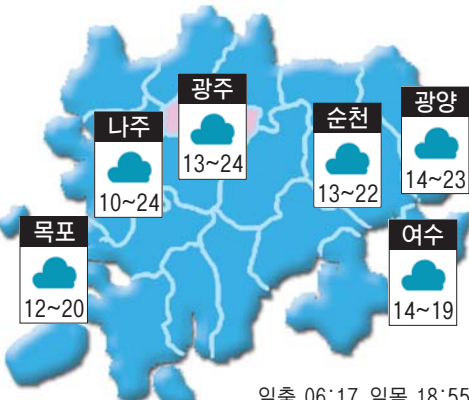
만약 일방통행로 개설을 강행할 경
우 주차장 마련, 상권활성화 대책, 방
향바꾸기 등도 제안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남구
청도 오는 4월께 시행하려고 했던 공

사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구간에 일방
통행과 인도 조성으로 증가하는 방문
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다”며 “스토리 개발, 조형물 설치 등
여러가지 상권활성화 방안을 논의중
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6:17 일몰 18:55
월출 21:41 월몰 08:05

장성	10~23	흑산도	10~17
담양	10~23	구례	9~24
화순	10~24	곡성	11~24
영광	12~22	완도	12~20
함평	11~23	강진	11~22
무안	13~22	장흥	11~21
영암	10~23	해남	10~21
진도	12~22	고흥	11~21
신안	11~21	보성	11~21

목포	만조 04:04 16:14 간조 09:10 21:23	여수	만조 10:52 23:17 간조 04:42 16:47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대부업체 대출사기 일당’ 무더기 덮미
광주지검, 5명 구속·13명 불구속 기소

신용도가 떨어진 무직자 등을 모집해 서류를 허
위로 꾸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일당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형
의로 A씨(41)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62)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달아난
9명에 대해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위조한
급여내역서를 제출, 22개 대부업체로부터 53차례
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부당으로 대출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희망자 모집·알선책, 위조
책, 작업대출 실무 담당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출명목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허위의 보
증인을 내세우고 보증인 명의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서까지도 위조해 대부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
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회당 1,000~6,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으며, 알선·위조책은 대출
금의 20~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여러개 대부업체에 한꺼번에 대출을 신
청, 대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
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해 선
의의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한 대출을 어렵게 하는 이
같은 작업대출 범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
다.
/고광민 기자

“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 안돼요”

광주시 4월 한달 집중 단속 나서

광주시는 4월 한 달간 사업용 화물차
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
협회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교통사고
취약 지역, 민원 다발 지역,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람 통행이 잦은 주택가 밀집
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의 단속에 집중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
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
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

정지 5일이나 과징금(일반화물 20만
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
원) 처분을 받는다.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가로등 불
빛을 가리고, 시야 확보도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교통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갓길 주차된 화
물자동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취약지역
과 아파트단지 주변,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해 2,223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4,305만원을 부과했
다.
/조기철 기자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수사 결론 임박

검찰 “경찰 수사 검토 마쳐...조만간 수사 지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
출 사건에 대한 검정의 수사 결과가 조
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개
월 동안 경찰의 수사 내용을 면밀히 살
펴봤다.

검찰은 구체적인 법률적용 문제와
사건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최근 최종 검토를 거쳐 수사 지휘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고, 향후 수사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지휘’ 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주요 관련자의 구체적인 소환 조
사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 통보 할 것
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2일 이용섭 전 일자
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이 신년 인사 메
시지를 발송하면서 당원 명부 유출 의
혹이 일었고 일부 권리당원들이 부
위원장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했
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자
통화·계좌내역, 민주당 광주시당 압
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당원 명부를 분

석,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된 당사자인 이
부위원장과 문자를 보낸 이 예비후보
의 비서, 당원 명부를 유출한 의혹을 받
는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에 대
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
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
겠지만 아직 혐의나 수사 계획 등이 확
정된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진행할 수
사가 남아있고 혐의, 사법처리 등에 대
한 결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
명했다.
/고광민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대규모 연회장에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에서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피앤제이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